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People for Aging in Place

조인숙*
Jo, In-Sook

박남희**
Park, Nam-Hee

신화경***
Shin, Hwa-Kyoung

Abstract

As the aging of this society, instead of growing numbers old protective functions of families decreased according to increasing tendency of nuclear families, increasing rates of females'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Now,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old is in need of social supporting system the cope with this situation. Thus it needs that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who stay at home that have local basis. The results are based on these factors are like this: 1) It is necessarily the instruction of medical welfare service. 2) The overlapped service is avoided and the service of specialized. 3) Most of the welfare service institution is Seoul and local city hall, so it needs the institution is transferred. 4) It needs the increase the number of home helper. 5) When the service is offered, the government must considers finance, elderly health condition and preference. 6) It needs the department for the welfare service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Keywords : Welfare service of the elderly who stay at home, Home helper, Aging in place, elderly people

주요어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 Aging in Place, 노인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3%나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이며, 앞으로 2020년에는 14.3%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런 노인들은 일상 생활능력(ADL)과 도구를 이용한 생활능력(IADL)의 감소로 인해 많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노인들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누군가의 도움이나 부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와의 별거 생활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부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기 노인복지 시설 중심이었으나 시설이 살던 곳과 떨어져있고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최근에는 탈시설화와 자신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증가로 Aging in pla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도 이

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및 장소를 분석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분석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와 행정기관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기존 단행본, 국내외 선행연구, 통계자료 등을 통해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문헌연구방법 중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수 및 서비스 제공 장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공시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문헌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내용 중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10월 10일~21일까지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상명대 대학원 주거환경학 전공 박사과정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강사
***정회원,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중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제공하는 160개소, 주간보호사업을 제공하는 43개소, 단기보호사업을 제공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은 아니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¹⁾ 중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110개소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II. Aging in Place 개념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Aging in Place의 개념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Aging in Place이며 이 개념은 하나의 시설 또는 근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건물에서 주간보호, 단기보호와 장기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매 환자나 일반 노인성 환자가 증상의 악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시설 같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2.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선행 연구(이연숙, 2002; 상형중, 1992)에서 보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욕구로 인해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노인이 기존의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1971년 프랑스에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극소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이 개선된 주택 내에서 노인이 생활의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등으로 인해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나 가족의 부양능력이 감소하여 사회적 부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 서구 많은 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한계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탈

1) 현행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를 분석하도록 한다.

2) 유엔의 권고안(2002),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권고 19조, 22조.

3) 홍형욱 외 6인(2004). 노후에는 어디서 살까. 지식마당.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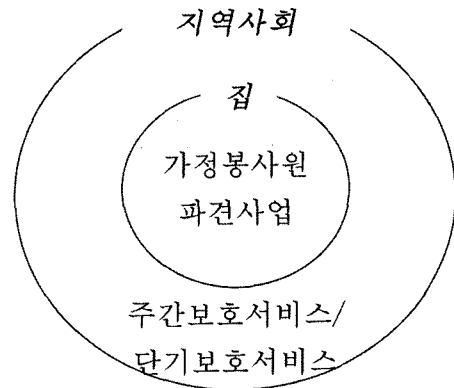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형태

시설화와 재가복지서비스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모두 재가노인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들의 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있다.

III.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⁴⁾를 토대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나라	서비스내용	나라	서비스내용
영국	가사지원서비스	미국	가정봉사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간휴식처제공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개식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신체보조기구대여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프랑스	생활상담서비스	일본	방문간호스테이션
	여가활동촉진사업		주간보호센터
	가사지원사업		쇼트스테이프프로그램
	간병보호		고령자종합상담
	노인급식		복지기기대여서비스
	주택개량사업		독거노인식사배달서비스
호주	개인보호서비스	스웨덴	가정도우미
	가사원조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주택개조
	식사 및 식품배달 서비스		가정방문간호
	가정방문간호서비스		배식
	교통편의제공서비스		주간보소

4) 박재간(2002). 서구사회의 노후생활과 복지정책.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홍형욱 외 6인(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배식서비스, 간병 및 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노인이 주택에서 Aging in Place를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이다. 또한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호주와 프랑스에서만 제공될 뿐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하면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택 내부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주택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강순주(2005), 보건복지부(1999), 이수일(2005), 이혜원(1999)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도를 정리하였다(표 2).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의 4가지 사업이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서비스되는 사업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3가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장소와 기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행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2.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및 장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은 집과 지역사회 내 기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적인 노인이 살던 지역과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가정도우미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의 수를 보면, <표 3>과 같이 전국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는 기관수는 총 220개, 주간보호사업을 하는 곳은 총 178개, 단기보호사업을 하는 곳은 총 66개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는 주로 절대적 노인이 많은 서울, 전북, 부산, 경기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상대적 노인 수인 노인인구비가 많은 전남 충남지역은 다소 적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인구비가 많은 지역에서 또한 절대적 노인 수가 많은 지역 못지않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장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 내 주간/단기보호 기관이다. 집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표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내용		장소	시간	대상자	서비스기관	행정기관	예산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시장보기, 청소, 생필품 구매, 세탁, 관계기관연락	집	주1일 (1일 3.3시간)	무료 실비 유료(예산 지원 없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중앙정부	국가/지방정부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식사시중, 신체청결, 외출동행, 의복갈아입히기, 목욕·용변수발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가정복지과	서울시자치구
	정서지원 서비스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씨주기, 생활상담서비스				서울시가정도우미센터	서울시 가정복지과	서울시전액부담
	노인 자립생활 상담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중앙정부	국가/지방정부
	장애노인 수발자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관	중앙정부	국가/지방정부
주간 보호사업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	주5일 (1일 6시간)	무료 실비 유료(예산 지원 없음)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중앙정부	국가/지방정부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취미, 오락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관한 사항							
	이용 노인 가족 상담 교육							
단기 보호사업	목욕, 식사, 작업치료, 물리치료		기관	45일 이내	무료 실비 유료(예산 지원 없음)	단기보호시설	중앙정보	국가/지방정부
	건강 점검							
	교육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사업	양성교육과정		기관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중앙정부	국가/지방정부
	보수교육과정							

표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

구분 위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 사업	계	노인 인구비	노인수 (만명)
서울	31	60	21	112	5.4	535
부산	24	20	3	47	6.2	225
대구	18	9	4	31	5.9	147
인천	9	6	3	18	5.5	137
광주	7	5	2	14	5.6	75
대전	8	7	5	20	5.5	75
울산	6	9	2	17	4.0	41
경기	18	15	7	40	5.8	519
강원	10	9	2	21	9.9	147
충북	4	3	1	8	9.7	142
충남	7	4	2	13	12.1	222
전북	38	8	4	49	11.2	212
전남	17	6	3	24	13.6	271
경북	8	10	4	22	11.6	314
경남	18	3	2	23	9.0	267
제주	5	4	1	10	8.4	43

자료 : 보건복지부(2004).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

제공받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주간/단기보호기관에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집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의 76.3%가 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80.4%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신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49.7%)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집이 불편하지 않아서가 4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집에 만족하고 집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노인들을 배려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 조사결과(1998)’에 의하면 노인이 사는 주택의 42.0%가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욕실·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살던 집에 적응을 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 내 노인의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노인들이 노후에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표 4>에서 보듯이 ‘불편함이 없는 주택(30.1%)’, ‘서비스 제공(21.5%)’ 순으로 노인들은 불편이 없는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노후의 주거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중요한 것	대상	백분율(%)
불편함 없는 주택		30.1
서비스 제공		21.5
여가생활		16.5
일거리		16.4
자녀친지와 가까이		15.5
계		100.0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표 5.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거주 공간

중요한 것	대상	백분율(%)
개조한 현재 주택		30.4
서비스 부가 고령자 전용주택		28.6
고령자 전용주택		25.9
요양시설		7.7
양로시설		7.4
계		100.0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거주 공간은 ‘개조한 현재주택(30.4%)’, ‘서비스 부가 고령자전용주택(28.6%)’ 순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개조한 현재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계층⁶⁾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의 질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잘 맞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노인의 부양 및 수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간/단기 보호 기관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주간 또는 단기 동안 노인이 주택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워 노인이 기관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현재 송영서비스(차량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접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 주거지나 송영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노인을 업거나 휠체어 등의 보조 장비를 통해 노인을 모셔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에는 노인이 기관을 이용할 때 기관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노인의 집에서 가까운 기관이

5)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6) 김경혜 외(1995)의 연구에서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이용하는 노인의 98.2%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서비스와
차량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
을 이용하는 행정의 편익이 아닌 노인의 입장에서 융통
성 있는 기관 선택을 배려하여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
켜야 할 것이다.

2.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가정봉사원파견사
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과 재가노인의 의료생활
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구분
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표 2에서 보듯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크게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자립생활상
담서비스, 장애인수발자 상담 및 교육, 무의탁노인 결
연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내용
을 알아보려고 가정봉사원 즉 노인의 집으로 파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
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 총 160개소를 대상으로 서비
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를 살펴보면, 가사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다
음으로 의료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식생활지원서
비스 등이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파악되었다.

외국에서는 간병 및 간호서비스는 중심서비스로 제공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더
나아가 재가노인복지사업에는 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로 꼭 필요한 서
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지원서비스는 가정봉사원 이외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사 등을 집으로 파견하여 노인의 건강 진료를 하고 있
으며,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도 있는데 이때에는 혈압측정, 당뇨측정, 의약품 구매 등
과 같은 비전문적이고 간단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6.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관련 서비스 n=160

구분	f(%)	구분	f(%)	
가사지원	138(14.1)	주거환경개선	74(7.6)	
의료지원	132(13.5)	결연사업	73(7.5)	
정서지원	122(12.5)	차량지원	43(4.4)	
식생활지원	반찬제공	93(9.5)	사회서비스	37(3.8)
	식사배달	71(7.3)	자립상담	27(2.8)
	김치제공	65(6.7)	보장구대여	16(1.7)
개인활동지원(개인위생)	89(9.1)	수발자상담	3(0.3)	

또한 호주와 프랑스와 같은 외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으
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
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의 생활환경에 대
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을 제도화 하여 환경에 노인의
생활이 구속받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의
료지원서비스는 전문 의료가정봉사원 파견 등과 같이 새
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의
도입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간보호사업

표 2에서 보듯이 주간보호사업은 크게 생활지도 및 일
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급
식 및 목욕 서비스, 취미, 오락 등 여가생활서비스, 지역
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관련 사항, 이용노
인 가족상담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 총 43개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파
악하였다. 각 시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종류를 설
명하고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재활 및 치
료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의료
간호서비스, 차량지원과 식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활 및 치료활동과 의료간호서비스를 많
이 제공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이 주로 허약한 노인, 경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 하여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주간보호 사업 서비스 n=43

구분	f(%)	구분	f(%)
재활및치료활동	40(17.0)	여가활동	29(12.3)
의료간호	33(14.0)	심리서비스	23(9.8)
식사제공	30(12.8)	부양자지원	17(7.2)
차량지원	30(12.8)	교육	5(2.2)
개인위생	29(12.3)		

(3) 단기보호사업

<표 2>에서 보듯이 단기보호사업은 크게 목욕·식사·
작업치료·물리치료, 건강검검, 교육프로그램, 취미프로그
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 단기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기보호사업 서
비스 내용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 총 20개의 단
기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실제 재가노인복지서
비스 제공기관의 단기보호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개인위

생, 의료서비스, 급식서비스 순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단기보호 사업 서비스 n=20

구분	f(%)	구분	f(%)
개인위생	5(25.0)	가족지원서비스	2(10.0)
의료서비스	4(20.0)	상담서비스	1(5.0)
급식서비스	4(20.0)	차량지원서비스	1(5.0)
재활서비스	3(15.0)		

(4) 보건소의 재가복지서비스

보건소에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보건소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방문의료서비스와 가정생활서비스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방문간호였으며, 다음으로는 방문진료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재가노인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노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의료서비스 도입시 치매예방프로그램, 노인성질환관리프로그램과 같은 노인만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몇몇 보건소에서 가정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재가복지사업 중 가정봉사원이 파견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내용과 유사하여 서비스가 중복됨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9. 보건소의 서비스 내용 n=110

구분	f(%)	
방문의료서비스	방문간호	103(26.6)
	방문진료	79(20.4)
	관련기관연계	49(12.6)
	재활기구대여	39(10.1)
	방문물리치료	24(6.2)
가정생활서비스	개인위생	45(11.6)
	가사서비스	27(6.9)
	정서서비스	20(5.1)

2.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간을 살펴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주1일 1회 3.3시간이고, 주간보호사업은 주5일 하루에 6시간씩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단기보호사업은 45일 이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봉사원은 주1일 1회 3.3시간씩 한명의 노인에게 파견되고 있지만 실제 가정봉사원이 케어하는 노인은 하루평균 3.15명⁴⁾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명의 가정봉사원이 하루 평균 10.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직장인들보다 지나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잦은 이직은 경력직 가정봉사원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표 6). 평균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하는 가정봉사원의 수가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력직 가정봉사원들이 많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의 수와 재정의 확충 등으로 경력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노인이 서비스 받는 시간을 좀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무급 가정봉사원의 활동기간

구분	명수
1년미만	33.54명
1년이상~2년미만	17.53명
2년이상~3년미만	12.11명
3년이상~4년미만	05.38명
4년이상	03.93명

출처: 이해영(2000). 케어복지론. 양세원. p212.

2.4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행정기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에 있어 정부에서는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차등하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국민기초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⁷⁾으로한 무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에 의해 서비스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제도적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즉, 소득에 의해만 차등적으로 적용 할뿐 노인의 건강상태나 선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같은 서비스를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 이해영(2000). 케어복지론. 양세원. p212.

7) 홍보선(1999). 고령화사회와노인복지. 세종출판사. p13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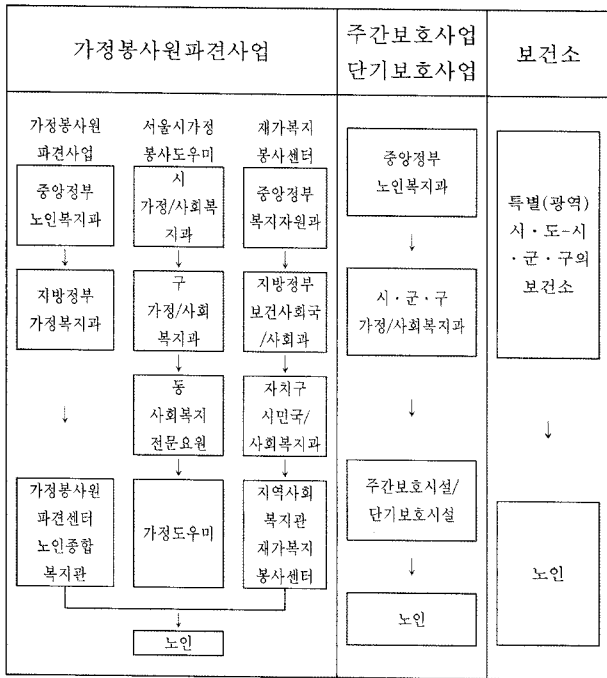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 행정기관과 전달체계

대상의 선정에 방법에 있어서도 추천 또는 신청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용과 접근이 힘든 상태임으로 홍보방법과 쉬운 접근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노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들은 신청과 추천 없이 대상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기관과 전달체계를 살펴보면(그림 2), 상위 행정기관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었으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상위 행정기관이 서울시(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면에서 차등이 있다면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서비스 기관과 전달체계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원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중앙정부의 노인복지과에서 시·군·구의 가정/사회복지과를 통해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거쳐 서비스 수혜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핵심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의 전달체계는 특별(광역시·도·시·군·구의 보건소)을 통해 서비스 수혜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사업마다 전달체계

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혜대상 노인이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 전달체계를 통한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의 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내 관할하는 부서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담부서가 아닌 복지자원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므로 서비스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위해 바람직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필요한 자료 제시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 사업을 통해 재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 역시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간병 및 간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노인이 재가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주택개조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볼직하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가사지원서비스와 의료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가노인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서비스가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로 의료지원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의료지원서비스는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기존의 가정봉사원보다 의료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가정봉사원의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에서 재가노인을 위해 방문간호와 가정생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노인만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아니므로 앞으로 노인만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 노인성질환프로그램 등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생활지원서비스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가 중복됨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크게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과 지역사회 내 복지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서비스를 받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그들의 주택의 물리적

8) 고영진(2003). 저소득층노인의 재가노인 서비스욕구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석사논문. p62.

환경의 질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가정봉사원의 서비스 제공에 매우 어려우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자립생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과 견사업 서비스 제공에 앞서 노인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의 질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간/단기보호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주로 절대적인 노인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상대적인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노인들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봉사원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과도하여 가정봉사원의 이직이 잦아 경력직 가정봉사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섯째,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소득에 의해 차등 선정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뿐만 아니라 노인질환(건강상태) 또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 방법에 있어 신청 또는 추천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수혜노인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행정기관이 크게 중앙정부와 서울시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가 이원화된 전달체계에 의해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고 재가노인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어 부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이원화된 전달체계간의 연계나 조정이 부족하므로 전문화되고 통합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담부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순주(2005),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3. 고영진(2003), 저소득층노인의 재가노인 서비스요구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4. 김경혜·노연희(1995),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 서울시정개발원.
5. 박재간(2002), 서구사회의 노후생활과 복지정책.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6. 보건복지부(1999),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안내.
7. 보건복지부(2000),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8. 상형중(1992), 노인과 주거. 산업도서출판공사.
9. 유엔의 권고안(2002),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권고 19조, 22조.
10. 이수일(200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이연숙(2002), 노인복지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12. 이해영(2000), 케어복지론. 양서원.
13. 이해원(1999),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4. 홍보선(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5. 홍형욱 외 6인(2004), 노후에는 어디서 살까. 지식마당.
16.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17.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18. 보건소 대표 사이트 <http://chc.mohw.go.kr/>
19. 사회복지관협회 <http://knsw.bokji.net/>
20. 노인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

(接受: 2006. 9. 27)